

라오스 알락(Alak)종족의 현황 및 종족 복음화를 위한 선교전략

-라오스 쉐콩(Xekong)주 라맘(Lamam)시
반 톤 노이(Ban ton noi)마을 중심으로-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SFR(South-East Asia Field Reserch) 12기 훈련팀¹

¹ 위 보고서는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SFR(South-East Asia Field Reserch) 12기 훈련팀에서 2006년 12월 27일 ~ 18일까지 라오스 쉐콩주 라맘시 반톤노이 마을, 씨투아 마을을 중심으로 알락 종족에 대해 현장조사한 결과이다. 조사팀은 목진섭(공간시스템공학부 '01), 조인엽(공간시스템공학부 '02), 신상규(공간시스템공학부 '04), 김영은(상담사회복지학부 '05), 김이연(공간시스템공학부 '06), 이지영(산업정보디자인학부 '06), 장준익(경영경제학부 '06), 김지운(생명식품과학부 '06) 이상 8명으로 구성되었다.

I. 조사설계

1. 조사의 필요성

라오스는 동남아시아의 중심인 인도차이나 반도의 중앙 내륙국가로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과 접경해 있다. 라오스는 경제적으로 비교적 낙후되어 있고 정치 및 사회적으로는 현재까지 사회주의 체제이어서 선교를 포함한 사회 제반 분야에 있어서 주목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라오스는 동남아시아의 리더십을 지닌 태국과의 접근성이 높으며, 중앙내륙이라는 지정학적 특성상 인도차이나 반도의 전략적 요충지로 여겨지는 나라이다. 그러나 현재 세계화의 급격한 변화 속에 머지않아 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무분별한 문물의 유입에 대한 우려도 함께 가지고 있다. 라오스는 정치적으로 불교가 권장되고 있지만 토속신앙과 혼합되어 있고, 사회적으로 종교자체가 습관화되어 종교심이 깊지 않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기에 라오스는 앞으로 사회, 경제분야의 개방과 함께 있을 이단들의 유입과 그에 대한 무분별한 수용에 대비하여 진실된 복음이 먼저 심겨져야 하는 곳이다. 또한 세상적으로 동남아에서 주목 받지 못하는 라오스이지만, 효율적인 인도차이나 반도의 복음화를 위해서는 인도차이나의 중앙 지역으로서의 중요성이 재고 되어야 한다. 또한, 지금의 라오스가 어떤 모습이든 땅끝까지 향해야 하는 복음화에 있어서 라오스는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라오스는 국가 제1사업이 도로사업일 정도로 도로망이 취약하여, 지역조사나 선교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계획 개발된 중·남부지역의 거점도시들을 기점으로 점차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라오스 지방의 많은 종족들은 외부와의 접촉마저도 힘든 실정이다. 근래 들어 몇몇 큰 도로 건설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나 라오스 남부의 쉐콩(Xekong)은 여전히 국가 내에서도 경제, 문화 면에서 많이 뒤져있는 편이며 접근의 어려움 등으로 복음화가 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라오스는 117개의 종족들이 다양한 언어와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 종족들은 지대별로 크게 세가지로 분류되며, 사회나 문화, 언어의 차이에 따라 각 종족들로 구분된다. 이렇듯 종족들이 고유의 언어와 문화로 구별되어 있어서 각 종족을 향한 개별적이고 효과적인 선교 전략이 요구된다. 그러나 정치적인 제약과 접근성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각 종족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래서 지역조사와 더불어 거주 종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비롯한 전반에 대한 새롭고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소수 종족들에 대한 개별적인 조사는 실제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구 분포나 비중 등을 기준으로 종족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유로 남부지역의 쉐콩주에 거주하는 14개의 소수

민족 중 21%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알락(Alak)족을 조사하게 되었다. 쉐콩주의 주 종족인 알락 종족의 생활상과 근황에 대한 조사는 알락 종족에 대한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되고 알락 종족과 유사한 쉐콩주의 여러 주변 종족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도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알락 종족 조사로 발견한 실제적인 필요들이 알락을 비롯한 라오스 남부지역의 종족에 대한 선교 가능성과 전략 구상을 위한 접촉점 발견에 도움을 줄 것이다.

2. 조사의 목적

- (1) 라오스 쉐콩주의 주 종족인 알락 종족의 정치, 역사,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조사하여 알락 종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 (2) 알락 종족에 대한 선교 상황을 조사하여 한국 교계 알리고 알락 족에 대한 선교의 필요성과 전략을 제시한다.
- (3) 알락 종족의 구체적인 상황을 조사, 보고하여 알락 종족을 위한 기도에 동참하게 한다.

3. 조사지역

라오스 쉐콩(Xekong)주 라맘(Lamam)시 반 톤 노이(Ban tone noy), 씨투아(Satua)마을

4. 조사대상

라오스 쉐콩주 라맘시 반 톤 노이, 씨투아 마을의 알락(Alak)족

5. 조사기간: 2007년 12월 27일 ~ 2007년 01월 18일

6. 조사인원

(1)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SFR 훈련생 8명

- 1) 목진섭 (00,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 디렉터, 미디어부원
- 2) 조인엽 (01,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 미디어부장
- 3) 신상규 (04,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 예배부장
- 4) 김영은 (05, 상담사회복지학부) - 예배부원
- 5) 장준익 (06, 경영경제학부) - 문서자료부원
- 6) 김이연 (06,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 문서자료부장
- 7) 이지영 (06, 산업디자인학부) - 총무부장

8) 김지운 (06, 생명식품과학부) - 총무부원

(2) 통역자

1) 수리나 (영어 통역)- 남, 80년생, 학원 영어 교사

7. 조사방법

(1) 사전 조사 - 인터넷과 잡지, 신문, 서적 등을 이용

(2) 현장 조사

1) 관찰 조사 : 리서치 지역 전반의 관찰

2) 인터뷰 조사 :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

① 전문가 인터뷰 : 현지 촌장 인터뷰

② 사역자 인터뷰 : 관련 사역자 인터뷰

③ 일반인 인터뷰 : 현지 주민 등 인터뷰

3) 문헌 조사

① 현지에서 마을 지도와 종족 관련 서적 구함

8. 조사의 성과와 한계점

본 조사의 가장 큰 성과는 라오스의 알락 종족을 조사하여 그들에 대한 선교적 필요성과 전략을 제시한 것에 있다. 한국 선교계가 선교 지역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오늘의 시점에서 알락 족과 같은 미전도 종족에 대한 지역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것은 한국 선교계의 의미 있는 업적이 될 것이다. 더불어 미전도 종족에 대한 선교적 필요성을 발견하고 선교의 전략을 제시하였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선교 지역을 조사하는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조사한 자료를 분석하여 유의미한 선교 정보(선교 전략)로 재가공하였다는 것은 한국 선교계로 하여금 선교지역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알락 족이라는 잘 알려지지 않은 미전도 종족을 조사하여 한국 교계에 그들의 존재를 알리고 더불어 그들을 향한 구체적인 기도제목의 도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점은 본 조사의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이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조사과정 상의 몇가지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본 조사의 한계점은 공산국가인 라오스가 가지는 지역적인 폐쇄성으로 인하여 알락 족이 거주하는 라오스

북부 지역을 전반적으로 조사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3주간의 리서치 일정 중에 상당 시간을 지역간 이동의 시간으로 소비하여서 충분한 조사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점도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마지막으로 언어의 한계가 존재하였다. 현지인 통역자의 도움을 받아 현지어(라오어)를 영어로 통역하여 정보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통역과 해석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II. 들어가는 말

평야와 고원을 아우르는 지형의 라오스에는 117개의 종족들이 지대 별로 크게 3개로 분류되어 다양하게 분포되어있다. 이 중 라오스 남부의 중심부의 고원인 볼로벤 고원(Boloven Plateau)에는 알락 종족과 라벤(Laven)족, 타오이(Ta-oy)족, 수아이(Suay)족 그리고 카투(Katu)족을 포함한 몽크메르게 종족이 살고 있다. 이 볼로벤 고원을 끼고 있는 남부의 쉐콩(Xekong)에는 중지대 종족인 라오팅(Lao Tung)으로 분류되는 알락 종족이 거주하고 있다. 쉐콩의 소수 종족 중 가장 인구 비율이 큰 종족인 이 알락 종족은 현재 공산주의 하에서 불교가 강권되고 있지만 아직 정령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종족이다. 지방정부로 촌장의 정기적인 보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중앙에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방의 경우 그 강제력이 비교적 약하게 제도적으로만 미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카투족과 더불어 독특한 종교적 전통행사를 행하는데, 이는 매년 초 물소를 죽여 그들이 믿는 귀신에게 바치는 의식을 치르는 축제이다. 질병과 흉작의 원인을 귀신을 잘 섬기지 못함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마을의 수호귀신에게 물소 제사를 드림으로 이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복을 기원한다. 현재에 이르러는 정령신앙이 하나의 관습으로 자리매김하였으나 십자가의 대속의미와 유사한 제사전통을 가진 이들에게서 복음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 공산주의의 체제 아래 종교의 자유마저 제한 받는 라오스 사회이지만 알락 종족의 마을과 같은 지리적, 사회 문화적 소외지역에서 복음화의 기회를 엿볼 수 있다. 라오스 전역의 복음화를 위해 이런 소수 종족 특히, 주변 환경 여건상 접근이 용이하지 못하여 사회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자들을 제조 명해야 할 것이다. 이번 조사는 한 종족의 복음화를 향해서도 중요하지만, 유사한 관습을 공유하는 주변의 종족에게 또한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어 더 큰 의의를 갖는다. 이로써 궁극적으로 라오스의 쉐콩 지역의 알락 종족 조사를 통해 지역 종족 복음화를 위한 실제적 선교 가능성을 검토하고 전략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III. 알락 종족의 현황

1. 일반개요

(1) 라오스 지역개관

라오스는 인도차이나 반도 중앙에 위치하며 북쪽으로는 중국과 미얀마, 서쪽으로는 태국, 동쪽으로는 베트남, 남쪽으로는 캄보디아로 둘러싸여있다. 정식 명칭은 ‘라오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이다. 수도는 중부의 태국 접경지역에 있는 비엔티안(Vientiane)으로 인구는 377,500명 정도이며 16% 도시화가 이루어져 있다. 라오스 총면적은 236,800km² 한반도의 약 1.1배, 남한의 약 3배이다. 라오스 인구는 2004년도에 6068117명이며 일년 단위 인구 성장 비율은 2.1%이다. 종교의 경우 불교는 61.05%, 정령신앙은 31.2%, 무교 및 기타종교는 4.3%, 기독교는 1.85%, 이슬람교는 1.1%, 중국 종교는 0.5%²에 해당한다. 공용어는 라오어로 문자 해독율은 43%, 전체언어는 약 90개 정도이다.

(2) 정체성

알락 종족은 Alak, Alack, Hrlak, Krlak 등 여러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다. 알락 종족은 Austro-Asiatic를 근간으로 차례로 Mon-Khmer, Eastern Mon-Khmer, Bahnaric, Central Bahnaric에 속한다. 언어는 노년층은 알락어를 사용하고 장년층은 라오어와 알락어를 함께 구사하며 아이들은 라오어를 배우고 사용한다. 알락 종족의 37%가 글을 읽고 쓸 줄 알며, 그 중 여성은 21%이다. 라오스 종족은 크게 지대별로 고지대는 라오쑹(Lao Soung), 구릉지대는 라오팅(Lao Tung), 저지대는 라오룸(Lao Loum)으로 총 세 부류로 분류된다. 그 중 알락 종족은 라오팅에 속한다. 또한 알락 종족의 주 종교는 정령신앙이다.

1) 라오스의 지대별 종족 구분

① 라오쑹

라오쑹(Upper Land Lao)은 메오(Meo)족, 미얀(Mien)족이 포함된다. 이들은 약 1,500m 이상 되는 높은 산에서 살면서 우거진 숲을 불태워 화전을 만들어 농사를 짓는데, 첫 해는 불탄 재로 인해 많은 수확을 거두나 그 다음 해부터는 거름 부족으로 적은 양을 수

² Operation World(<http://www.gmi.org/ow>), 라오스 통계 자료를 참고 편집하였음 (검색일자:2007-1-25).

확한다. 이 때문에 이들은 매 3년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가족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나무와 들풀을 엮어 간소하게 만들어 거주한다. 라오쑹의 마을은 가계의 확장된 형태이다. 마을 안에 많은 씨족이 있고, 씨족 안에 지도자가 있다. 그리고 촌장은 모든 씨족을 통치할 수 있다. 라오쑹은 정령신앙을 강하게 의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샤먼이 마을의 모든 질병자들을 진찰하고 관리하며 더 나아가 마을의 행사나 마을을 옮기는 등의 결정도 전적으로 이들의 영향으로 이루어진다. 라오쑹 가운데는 소수의 불교인과 기독교인이 있다. 특히 CMA(The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 단체에 의해서 많은 기독교 개종자가 일어났다.

② 라오팅 - 알락족은 라오팅에 소속

라오팅(Middle Land Lao)은 흔히 몽(Mon), 크메르(Khmer) 또는 몽크메르(Mon-Khmer)라고도 불린다. 라오스에 최초의 정착민인 이 종족은 흔히 산중턱에 거주하며 라오스 북쪽에서 남쪽에 걸쳐 폭넓게 정착하고 있다. 몽족과 비슷한 라오팅은 산의 비옥한 지역에 주로 거주하며 수목을 베거나 태워서 농사를 짓는다. 타이족에 의해서 라오팅은 카(Kha)라고도 불리는데, 그 이름의 뜻은 ‘종’을 의미한다. 실제로 옛 라오 왕정 정치시대에 이 종족은 왕족의 종이였다. 라오팅은 크게 3개의 부족으로 Phu Noi, So 그리고 Sek 으로 약 100,000명으로 추산된다. 지금은 문화나 언어 그리고 의복 등 많은 면에서 라오족과 거의 동화되고 있다. 라오팅 안에서 다시 25 ~ 30부족으로 세분된다. 이들은 주로 북쪽에 가장 많이 살고 있고, 남쪽에는 볼로벤 고지를 따라 소수가 있다. 그리고 약 300,000의 크무족이 라오팅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들의 많은 수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있다.

③ 라오룸

라오룸(Low Land Lao)은 가장 비옥한 메콩강 주변을 따라 거주하고 있다. 13세기 이래 라오스의 지배 종족인 라오룸은 전체 인구의 68%를 차지한다. 이들은 라오 정부의 주요 요직뿐만 아니라 정당의 대다수를 차지함으로 전체를 통괄하고, 언어는 라오-타이어이며, 주식은 찰쌀이다. 찰쌀은 손으로 먹으며 때로는 젓가락과 스푼도 사용한다. 매운 것을 즐겨 먹고 닭고기나 물고기를 많이 먹는다. 대개 주부들도 집에 있지 않고 일을 하는데 흔히 노점상이나 야채판매 또는 공무원으로도 일을 한다. 남성은 흔히 특별한 기술직, 무역직, 용접, 조각, 목공, 석공, 농업, 어업 등에 종사한다.

(3) 분포 및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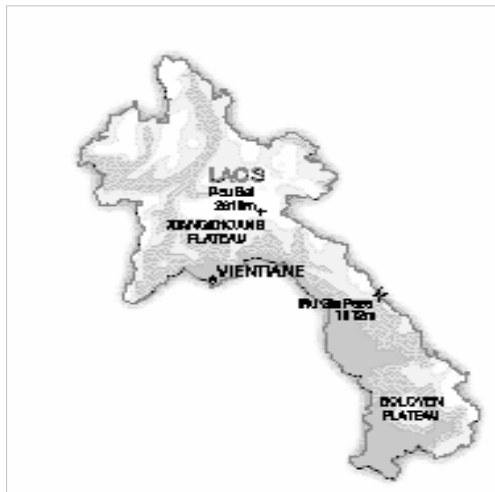
알락(Alak)족은 라오스 남부에 걸쳐서 17,000여명이 살고 있다. 알락 종족의 가장 높은 거주지역은 쉐콩(Xekong)지역이고 그 외에 살라반(Salavan) 아파푸(Attapu) 따텡(Thateng) 라맘(Lamam) 카룸(Karum) 닥청(Dakchung) 지역이 있다. 일부 지역의 알락



〈그림 III-1〉 라오스 중남부 알락족 거주지

종족과 카투(Katu)족은 인접한 곳에 살고 있다. 조사팀이 조사한 지역은 쉐콩주의 라맘시(Lamam City)에서 서쪽으로 약 10km 떨어진 남부의 반 톤 노이 다이(Ban tone noy dy)마을, 북부의 반 톤 노이 느아(Ban tone noy nuea)마을과 씨투아 느아 (Satua nuea)마을이다. 반 톤 노이 다이 마을은 총 280여명의 사람이 살고, 그 중에 130여명이 여성이다. 조사 마을은 한 가정당 6~8명의 아이를 출산하여 다산감사형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이 도시로 떠나는 데에 있어서 재정이 부족하고, 친지 또한 거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구증감은 작다.

(4) 위치 및 환경



〈그림 III-2〉 볼로벤 고원이 표시된 지도

알락 종족은 라오스 남부의 살라반과 쉐콩주에 주로 분포하며 세계적인 커피 재배지로 유명한 해발 1,000m 정도의 볼로벤 고원에도 분포하고 있다. 볼로벤 고원을 포함한 중부와 남부지역은 삼림이 무성하지 않아 북부 지방에 비해서 비교적 개발이 쉽다. 비옥한 토지를 갖춘 볼로벤 고원에서 프랑스 식민지 시대부터 커피와 고무, 바나나가 집중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했다.

볼로벤 고원은 이 곳에 거주하는 알락, 카투, 타오이, 그리고 수아이 족이 포함되는 몽-크메르(Mon-Khmer)의 문화 중심지에 해당한다. 또한 이 곳에는 유명한 폭포들이 존재한다.

알락 종족이 거주하는 쉐콩주는 라오스 동남부에 위치한다. 쉐콩주는 라오스 내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으로 손꼽힌다. 쉐콩주의 가장 큰 마을일지라도 쉽게 접근하기 힘들다. 이로 인해 미개

발된 울창한 삼림들이 썩쿱주 전역에 넓게 존재한다. 이러한 썩쿱주의 삼림은 엄청난 신장세를 기록하는 베트남의 가구회사와 목재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라오스 회사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1975년도 공산화에 성공한 라오스 정부는 이 썩쿱주에 거주하는 소수민족들의 공을 높이 사서 이 지역을 개발해 줄 것을 약속했다. 라오스 공산정부의 정책은 숲을 태워 화전을 만들고 이곳에 집중적인 농작을 함으로써 지역민들의 경제상태를 보다 풍요롭게 하려는 계획이었지만 계속되는 흉작으로 인해 결국 소수민족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결국에는 100개가 넘는 마을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른다. 하지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이들의 삶 역시 생활 기반시설의 미비, 흉작 등의 악재가 겹쳐 아직도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

기후는 열대몬순기후로써 연 평균 기온은 26.5도, 연 평균 강우량은 2045mm이다. 한 해 동안 건기와 우기가 차례로 나타난다.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이르는 건기에는 북쪽에서 건조한 바람이 불어온다. 그래서 건기 때 많은 지역이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5월부터 10월까지의 우기에는 남서풍이 불며 평균 27도의 기온을 보인다. 12월~1월 사이에 평균 기온 16~21℃의 시원한 날씨를 보이고, 우기가 시작하기 바로 직전인 3, 4월에는 35℃까지 기온이 올라가 가장 덥다.

(5) 역사

〈표 III-1〉 라오스 역사

시대	내용
08세기경	라오족, 중국 남부로부터 남하 시작
13세기경	라오스 각지에 무앙(Meuang)이라 불리우는 지방호족정치체 성립
1353	최초의 통일왕국인 란상('백만마리의 코끼리' 라는 의미) 왕국 건설
1560	란상왕국 수도 천도(루앙프라방 → 비엔티엔)
18세기초	루앙프라방(북부), 비엔티엔(중부), 참파삭(남부) 등을 중심으로 3개 왕국으로 분열
19세기말	비엔티엔, 루앙프라방, 참파삭 세 왕국이 모두 태국(삼 왕국)의 속국으로 전락
1893	프랑스 보호령 시작
1945	일본 군사점령
1945	프랑스가 재점령(일본 패망)
1954	프랑스로부터 독립 ※ 54년 7월 디엔비엔푸 전투에서 프랑스가 호치민군에 패배
1954	독립이후 좌파, 중립파, 우파간 대립 격화
1957	제1차 연립정부(입헌군주제) 수립
1962	제2차 연립정부, 1974년 제3차 연립정부를 거치면서 친서방 비엔티엔 정부(왕정)와 좌파 라오인민혁명당 (파테트 라오)간의 대립 격화 / 라오 인민 혁명당, 베트남군의 후원하에 무혈혁명 성공

1975.12	라오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 수립 선포(75.12.2)
1975-98	수파누봉' 대통령(초대), '카이손' 대통령(제2대), 누חק' 대통령(제3대)을 중심으로 한 집단지도체제 유지
1998.2	캄타이' 대통령(임기 4년) 취임(제4대)
2002.4 ~ 현재	캄타이' 대통령(임기 5년) 재선

1) 2차 대전 이전

라오스는 14세기 중엽 중국의 윈난(雲南) 지방에서 남하한 타이족(族)의 한 분파인 라오족에 의해 건국되었다. 크메르(캄보디아)의 원조를 받은 파눔이 1353년에 루앙프라방에서 왕위에 올라 백만의 코끼리란 뜻의 란상 왕국을 세움으로써 기록상의 라오스 역사가 시작되었고, 다시 그는 시암(타이)과 전쟁을 벌여 현재의 타이 북부 및 북동부까지 영토를 확장하였다. 그 뒤 번영을 지속하여 17세기 말엽에 술라나봉사왕(王)의 통치를 받으면서 라오스는 황금기를 누리게 된다. 그러나 1694년에 술라나봉사왕이 죽자 왕위계승 분쟁이 일어나고, 1707년에는 루앙프라방과 비엔티안 두 왕국, 1713년에는 참파삭 왕국으로 갈라지게 된다. 1893년 프랑스 침략 때까지 세 왕국의 분열, 대립이 지속되었으며, 그 동안에 시암과 베트남의 간섭과 지배도 받았다. 19세기 후반 프랑스는 베트남, 캄보디아를 차례로 지배한 뒤, 1893년 라오스를 보호령으로 하였다. 프랑스는 라오스의 3개 왕국을 1개국으로 통합하여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연방에 편입시키고, 프랑스 밑에 루앙프라방왕을 둠으로써 라오스의 상징적인 왕으로 삼았다.

2) 2차 대전 이후

제2차 세계대전 후 라오스가 프랑스공동체 소속 독립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자 참파삭 왕가(王家)의 붕 움공(公)과 그 뒤를 이은 장군 푸미 노사반 및 비엔티안 왕가의 이복 형제인 수반나 푸마공과 수파누봉공이 대립, 항쟁하는 사태가 지속되었다. 붕 움은 우파 세력을 대표하고, 수파누봉은 좌파 세력인 파테트라오를 이끌었으며, 수반나 푸마는 중립세력을 대표하였다. 푸마공은 1957년 중립파와 파테트라오가 합의한 연립정부 및 1962년에 3파가 합의한 연립정부 등에서 총리가 되어 혼란한 국내정세의 안정을 위해 진력하였고, 국제적으로도 동·서양 진영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정치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베트남과 캄보디아가 공산화되자 여세를 탄 파테트라오는 내전을 가열화하는 한편, 1975년 8월에 대규모의 시위를 벌여 지배권을 장악하고 행정권을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같은 해 12월 2일 국왕을 폐위시키고 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을 수립하였다.

북베트남의 지지를 받던 케이손 폼비안이 초대 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의 수상으로 임명되었다. 1975년 다시 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이 왕정을 폐지하고 공식적으로 성립된다. 라오스인민민주공화

국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과 같은 노선을 표방, 1989년 3월 라오스 최초의 총선거를 통해서 최고 인민회의 79명의 대표들이 구성된다. 1975년 라오스 공산정권 수립 후 15년 간 헌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다가 1991년 8월 최고인민회의에 의해서 최초의 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의 헌법이 승인된다.³

(6) 요약

라오스의 한 종족인 알락(Alak)족은 구릉 지대에 사는 라오팅에 속한다. 노년층은 알락어를 사용하고 장년층은 라오어와 알락어를 함께 구사하며 아이들은 학교에서 라오어를 배우고 사용한다. 이들은 라오스 남부에 걸쳐서 17,0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커피 재배지로 유명한 볼로벤 고원의 살라반주와 쉐콩주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마을 내에 야자와 쥘, 대나무로 만든 초가지붕의 집들이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들은 종교로서 정령신앙을 믿는다. 또한 매해 초에 신년 축제의 핵심으로 화려한 물소 제물(buffalo sacrifice) 의식이 있다.

알락 종족은 세대를 거칠수록 알락어 대신 주로 라오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알락어 보단 라오어로 이루어진 내용이 보다 수월하다. 또한 이들은 마을 내에서 원형 형태를 이루어 거주하기 때문에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거나 촌장 한 명만 복음을 받아들여도 마을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2. 정치분야

(1) 개요

라오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라오스, LAO P.D.R)은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유일하게 4면이 육지로 갇혀 있는 내륙국가이다. 이것이 인접 나라들과 전 역사를 통하여 국경분쟁이 있게 한 소지가 되었다. 라오스는 1970년대 중반 북 베트남과 군사적 동맹을 맺고 남 베트남을 침공하면서부터 정치독재의 공산주의 노선을 이어왔다. 1975년 라오스 인민혁명당이 유일하게 창설된 이래 그 집권 하에 있으며, 당의장 카이손을 중심으로 하는 지도체제가 유지되어왔다. 1989년 총선거 후 최고인민회의는 1991년 8월의 신 헌법 제정을 포함한 법 체계의 정비에 전념하였고 1992년 11월 카이손이 사망하자 당의장 캄타이 시판돈(Khamtay Siphandone), 전대통령 누학크 등을 중심으로 하는 지도체제로 바뀌었다. 신헌법에 근거하여 1997년 12월에 제2회 국민의회 총선거를 실시

³ 동아 세계 대백과 사전(www.kin.naver.com/open100), 라오스 역사를 참고, 편집하였음. (검색일자:2007-1-25).

시하였고 1998년 2월 캄타이 시판돈이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옛 우파의 왕국 군대는 왕제 폐지와 더불어 해체되고, 파테트 라오군(軍)을 모체로 하는 인민해방군이 구성되었다. 행정부의 주요 장관 등이 현역계급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병역은 형식상 지원제이나 사실상 징병제이며, 복무연령은 17~26세이고 기간은 18개월이다. 병력은 5만 5150명이며, 정규군·지방군·민병·게릴라 부대로 구성된 지상병력이 주 병력이고 5개 사단으로 구성되었다.

라오스의 외교정책 기조는 주변 5개국과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 라오스는 체제유지 및 안보 차원에서 대미 전쟁을 함께 치룬 베트남과의 특별관계 및 중국, 북한, 쿠바 등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우호 협력관계 유지를 기본으로 한다. 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시장경제원리 도입과 더불어 지역협력 필요성에 따라, 주변의 아세안 제국 및 서방제국과의 우호관계 발전에 노력하는 전방위 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특히, 1986년 제4차 당대회에서 신경제 제도(NEM)를 도입한 이래 서방제국과의 경제관계 강화에 힘쓰고 있다. 1997년에는 아세안에 가입하여 역내 국가와의 협력증진을 위해 노력 중이며, 2002년 설립된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에의 완전 가입(2005년 예상)을 앞두고, 국내 시스템 정비, 인력교육 등 국제 경제 질서에 통합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편, 인도차이나 전쟁에서 발생한 MIA 문제에 있어서도 적극적 자세를 보여 미국과의 관계도 개선되어 왔으나, 실종 미국시민문제 및 라오스의 인권문제 등을 둘러싼 마찰은 지속되고 있다.

라오스와 한국과의 외교관계는 1974년 6월 각각 남북한과 수교를 하였다. 그러나 라오스가 1975년에 공산화되면서 그 해 7월 한국과 국교를 단절하게 된다. 북한과는 외교관계를 그대로 유지하였고, 지금까지도 우방관계를 계속 지켜오고 있다. 그 후 1995년 7월, 미국과 베트남의 수교로 인도차이나 정세가 안정됨에 따라 우리나라와 라오스 간 외교관계도 재수립되었다. 양국은 1995년 10월 25일자로 외교관계를 수립하여 라오스는 한국의 180번째 수교국이 되어있다. 우리나라는 북한과만 외교관계를 갖고 있는 라오스와의 수교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주 라오스 대사관은 1996년 10월 4일에 개설되었다. 이제 라오스 사람들은 한국을 ‘까오리’ 라고 하며, 동경의 대상으로 바라본다. 비엔티안 시내 곳곳에서는 우리나라와의 최근 경제관계를 반영하듯 현대와 대우의 자동차들이 많이 눈에 띄고, 우리나라에서 건설하는 댐 공사와 건축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 많다.

스웨덴의 경우는 SIDA PROJECT(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를 통하여 라오스의 민주화와 지방분권화를 돕고 있다. 이를 통해 각 주에 집 짓는 기술과 방법을 전수함으로써 중앙 집권의 권력이 점차적으로 이동하고 있다. 초기는 라오스 정부와 함께 하였고, 현재는 루앙프라방(Luang Prabang)주와 함께 일하고 있다. 스웨덴은 1992년부터 공공기관등을 설립해줌으로써 라오스를 원조하고 있으며 법적 문제나 법적 지식 등에 대한 현대적 관점을 소개해 주고 있다. 더불어 라오스 국가 조사의 필요성을 알고 스웨덴의 대학이 라오스의 많은 기관들과 함께 조사에 참여하고 있다.

(2) 정치구조

라오스의 정부조직은 크게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로 나뉜다. 중앙정부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부통령, 총리, 부총리 3명 산하 13개 부처로 이루어져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회의결(출석의원 2/3 이상)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다. 총리는 국회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며 행정부를 지휘, 감독한다. 현재는 2002년 4월에 재선출된 Khamtay Siphandone 대통령과 Bounnyang 총리가 직무를 이행하고 있다. 신 헌법에 따르면 라오스의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이자 최고인민평의회 의장이다. 의회(국민의회)는 단원제로 임기 5년의 의원 99명으로 이루어지고, 라오스 인민혁명당의 서기장이 총리직을 맡는다. 라오스 인민혁명당은 정치국에 의해 통솔되는 중앙위원회에 의해 조직·운영된다. 지방정부는 16개주 외 1개 특별구(싸이솜분), 1개 특별시(Vientiane Municipality)로 구성되어 있다. 각주별로 하부 행정기관으로서 군(무앙), 촌(반)이 있으며, 주지사와 비엔티안 시장은 총리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각도의 이름은 풍싸리, 우돔싸이, 루앙프라방, 싸이냐부리, 씨앙콕, 위앙짠, 씨완나켓, 씨라완, 쎄경, 아따쁘, 버깨오, 보리캄사이, 찰빠삭, 후와판, 캅무안, 루앙남타, 위앙짠시, 특별구로 싸이솜분이 있다. 각 도에는 도지사가 있으며 도마다 자치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각 지방행정 단위에는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인민혁명위원회가 있다.⁴

국회는 단원제이며 의원 정수는 109명이었고 임기는 5년이다. 현 제5대 국회는 2002년 4월 총선거에 따라 선출되었으며 현 국회의장은 Samane Viyaketh (정치국원, 당서열 2위)이다. 의원들은 라오스의 유일 정당인 라오인민혁명당(Lao People's Revolutionary Party) 소속으로 그 산하단체인 라오국가건설전선(Lao Front for National Construction)의 일원이기도 하다. 정기 국회는 연 1회 개최되며, 국회는 헌법의 승인 및 수정, 법률의 개폐 및 수정, 국가 계획의 승인, 대통령의 선출, 총리의 임명 등 권한을 가진다. 의원선거는 직접 보통선거로 만 18세 이상의 남, 여 성인에게 선거권, 만21세 이상에게 피선거권이 부여되고 있다. 사법제도를 기반하여 최고 재판소로서 대법원(Supreme People's Court)이 있고, 주 및 군별로 지방 인민재판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최고 재판 소장 및 재판관들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임명한다. 재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공개로 진행되며 법률고문평의회가 피고인을 변호한다. 독립기관으로서 중앙의 최고인민검찰청 및 주, 군 별로 지방 검찰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헌법 및 여타 법률을 살펴보면 헌법은 1991년 8월 15일에 공포되었으며 전문은 10장 80조로 구성되어 있다. 동 헌법의 기본 이념은 1991년 3월 제5차 당대회의 노선을 답습하여, 정치적으로는 일당제를 유지하고 경제면에서는 시장경제와 개방 경제를 지향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또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거주

⁴ 동아 세계 대백과 사전(www.kin.naver.com/open100), 라오스 정치를 참고, 편집하였음. (검색일자:2007-1-25).

이전의 자유, 언론 결사의 자유, 교육과 취직의 권리 등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외에 2002년 12월 당시 약 70여개의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있으며, 미비한 법 제정 및 보완에 노력했다.

이들의 주요 정당 및 단체에는 먼저 라오인민혁명당(Lao People's Revolutionary Party, LPRP)이 있다. 이는 1930년 인도지나 공산당을 모체로 1955년 3월 창설 및 결성되었다. 현 당 서기장은 캄타이(Khamtay Siphandone)대통령이며 당원 수는 약 5만명에 달하고 정치국원 11명을 포함하여 당 중앙위 위원은 53명이다. 당의 기본 지도노선은 인민민주주의 확립을 통한 평화, 독립, 단합, 변형된 라오스를 건설하여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를 완성해 나가는 것이다. 라오스의 중앙위원회에는 주 및 하부 행정단위 별로 지방위원회가 있으며 당 대회는 5년에 1회, 당 중앙위원회는 연 2회 개최하여 당의 지도 방침, 정부의 기본정책 방향 등을 결정한다. 당의 산하 및 외곽 단체로서는 라오 국가건설전선, 노동조합연합, 당청년동맹, 당여성동맹, 세계평화위원회, 불교연맹, 각국들과의 우호협회 등이 있다. 라오국가건설전선(Lao Front for National Construction, LFNC)은 인민혁명당 지도하에 그 활동을 돕는 민족통일전선 조직이다. 1979년 전신인 라오애국전선을 대체하여 평화, 독립, 사회주의 건설 완성을 위한 목적으로 창설되었다. 주요행동 강령으로는 민족단합의 힘 발휘, 노동동맹을 기초로 하여 민족통일전선의 강화, 사회주의 민주주의 촉진, 국방, 경제, 문화의 건설과 발전에 이바지, 당과 국가의 외교정책 수행에 기여이다.

라오스의 국방은 주로 1949년 1월 20일에 건군된 라오스인민해방군 중심이고, 이는 1982년 8월 라오스인민군으로 개칭하였으며,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 지시를 받는다. 형식은 지원병 제도이나 사실상 징병제, 병역복무 연령은 17-26세, 복무기간은 18개월이다. 2001.3 제6차 인혁당 대회를 통해 군 관계 인사가 대거 요직에 기용되는 등, 아직도 군부가 정계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지방 방위용의 촌락 자위조직인 준 군사조직으로 민병자위대를 10만 이상 보유하고 있다. 국방예산은 연간 5천만볼로 추정된다.

알락 종족 주거 마을에는 촌장이 세워져 있어 마을의 제반 사항에 대해 관리하고 있다. 촌장은 공산당 지방 정부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를 하는 공산당원이며 부동장은 비밀경찰인 경우가 다반사이다. 비록 공산주의 체제하에 작은 마을 까지도 조직력이 미쳐있지만, 중앙 집권식의 파견이 아니라 마을 내의 구성원 중에서 촌장이 세워지므로 마을 자치(예 - 신년행사)에 있어서 별 다른 조직적 구분 없이 함께 주민들이 참여하며 여러 마을 남성어른들의 회의 모습도 볼 수 있다.

(3) 행정구조

전국은 16개 주로 나뉘어 있고, 주(province) 아래에 구(무양, district) 촌(반, village)이 있다. 총 16개 주는 아타푸(Attapeu), 보케오(Bokeo), 볼릭캄싸이(Bolikhamxai), 참파삭

(Champasak), 호위판(Houaphan), 카뮈언(Khammouane), 루앙남타(Luang Namtha), 루앙프라방(Luang Prabang), 오돔싸이(Oudomxai), 풍살리(Phongsali), 살라반(Salavan), 사바나켓(Savannakheth), 비엔티엔(Vientiane), 샤벌리(Sayabouli), 쎄콩(Xekong), 시엥쿠앙(Xiengkhouang)과 1개의 특별구(켓피셋:Khetphiset)와 1개의 자치구(캄펑나콘:Kampheng nakhon)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에 위치한 촌의 경우는 알락 종족과 같이 동일 종족으로 구성된 경우가 있고 촌 내의 각 집은 고유한 번호의 호수로 분류되어 있다. 촌 내에는 그룹이 나뉘어 있어 마을 일을 효율적으로 분업하도록 되어있다. 행정 서비스의 경우 각 주의 거점 도시 주변에서만 집중되어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지방에 거주하는 여러 소수 종족(라오팅)들은 혜택을 받기가 힘들다.



〈그림Ⅲ-3〉 마을 지역별 개요가 적힌 표지판



〈그림Ⅲ-4〉 호수 (위에서부터-시/촌락/반지/그룹 번호)

각 주의 거점 도시 주변에서 30km이상 떨어진 경우 수도, 전기와 같은 서비스도 받을 수 없는 형편이다. 각 마을마다 마을의 지역별 개요가 적힌 표지판이 당국에서 제작되어 설치되어 있다.

(4) 치안

라오스의 아편 생산량은 세계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아편은 라오스의 '황금의 삼각지대'에서 라오족이 산출하는 주요작물이지만 정확한 산출량은 알 수 없으며 대부분 태국으로 밀매되고 있다. 1990년부터 불법 약물의 생산과 취득을 막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미국도 이를 위한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정권 교체 후 15년 이상이 경과되어 치안은 안정되어 있지만 외국인 주택을 노려 금품을 훔치는 도둑이나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 가시적일 정도로 심하진 않지만, 외국인의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5) 요약

라오스는 인도차이나 반도의 5개국과 접하여 있는 내륙 국가로 1953년 10월22일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전 레가 있고 이후 1970년 중반부터 공산주의 국가의 길을 걸어왔다. 초기 사회주의 국가와의 전쟁 동맹으로부터 시작하여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세계화와 자본주의의 물결가운데 80년대 이후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주변 아시아 국가와 서방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위한 전방위 외교를 펼치고 있다. 정치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서열화된 체제를 가지고 있고 당은 라오인민혁명당이 유일하게 존재한다. 당의 기본 지도노선은 인민민주주의의 확립을 통한 평화, 독립, 단합, 번영된 라오스 건설을 통한 궁극적인 사회주의 국가 완성이다. 공산주의 하에서 국가 전반의 체계가 조직적으로 잘 되어있어서 지방의 종족 마을의 촌장까지도 공산당원으로 지방 정부와 연계되어 정기적 보고를 하게 되어있다. 라오스는 현재 공식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국민에게 불교를 강권하고 있다. 기독교에 대하여는 할당된 수만명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고 교회 외부에서 전도나 예배를 금지하며 제도적으로도 제한하여 여러 기독교인들이 비밀리에 지하교회의 형태로 모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라오스의 공산주의정권은 현재 부정부패와 같은 체제 말기의 증상을 띄며 빈익빈 부익부의 실상을 낳고 있어, 많은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조만간 막을 내릴 날이 멀지 않았다고 전망한다. 말기에 접어들어 라오스의 공산주의가 무너져 정치적으로 굳게 닫혀있던 라오스의 문이 열리면, 그간 압제 아래 숨죽이고 있던 신자들의 복음의 기쁨이 역동적으로 전파될 것으로 기대된다.

3. 경제분야

(1) 개요

라오스의 총 GDP는 2003년 기준으로 1,759\$이며, 1인당 GDP는 마찬가지로 2003년 기준으로 5.4%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1999년도에서 2002년도까지 총 3.7%의 성장률을 보였다. 또한 GDP 내 국가 원조 비율은 14.1%에 달한다. GDP 성장률은 2004년 기준으로 5.4%의 성장률이 보이며 물가 상승률은 7.0%이다.⁵

(2) 산업구조

프랑스 집권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알락 종족은 20C초 부터 커피 재배를 한다. 그에 알락 종족

⁵ UN Development Program (www.undp.org), 라오스 경제 분야를 참고, 편집하였음. (검색일자:2007-1-25)

의 주요 직업은 커피재배이다. 조사팀이 조사한 알락 종족 마을은 라오싼 주식회사(커피회사)와 계약을 맺어 거래하고 있다. 마을 뒤편 계곡 부근의 평지에서 논 농사를 하며, 경작을 통해 얻은 쌀은 주로 자급자족으로 쓰인다. 하지만 커피원두를 싼 값에 판매하여 기본생활을 유지하는 정도이다.



〈그림Ⅲ-5〉 경작한 커피를 말리는 모습

(3) 발전수준

라오스의 도시는 1995년도부터 발전하기 시작하여 현재 비엔티안과 루앙프라방을 비롯한 도시들은 일본, 스웨덴과 같은 선진국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 라오스는 교통분야에서 외국 기업의 원조를 유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참여와 기업 물색에 어려움이 있다. 도시의 전력은 중심부를 중심으로 몇 Km까지 제한적으로 공급된다. 팍쎄(Pakse)의 경우에는 6Km까지 공급된다. 도시는 대부분 제조업으로 가공하고 조립하는 공장들이 있으며 최근 섬유제품 및 의류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맥주, 정미, 음료수의 생산을 비롯해 최근 들어서 건설업의 활발한 성장을 보이지만 주로 베트남계 업체의 주도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전체 물량의 약 80%에 달하고 있다. 농촌 면적의 약 47%가 산림지대이며 농촌지역에는 최근 들어 커피와 사탕수수과 같은 상업작물의 생산을 하고 있다. 알락 종족을 비롯한 여러 라오스 남부 지방에 분포하는 종족들은 프랑스 식민지에서 얻은 커피 경작의 기술로 1999년도 1만 8천 톤으로부터 현재 계속적으로 커피경작의 발전과 생산의 증가 추이를 보인다. 그러므로 알락 종족을 포함한 대부분의 남부지역 종족은 커피경작으로 생계비를 얻는다. 주요 산업은 농업이며 칼륨, 철, 금, 석탄과 같은 천연자원이 풍부하다. 하지만 천연자원을 위한 개발이 미비하다. 현재 라오스 정부에서 알락 종족 마을의 현재 진행중인 공공산업은 산맥에서 수력발전

을 위한 댐 건설이 있다. 라오스 남부지역의 종족은 같은 상황과 여건 속에서 상호 커피재배에 종사하며 알락 종족, 라벤족, 카투족이 같은 지역에서 마을단위로 산다. 다른 마을과 경제적 교류는 없으며 종족간 경제 불평등 또한 없다.

(4) 주요산품



〈그림III-6〉 마을에서 기르는 돼지

주요 생산품은 커피이고 그 외에 쌀, 사탕수수가 있다. 쌀과 사탕수수는 자급자족 수준에 머문다. 닭, 돼지, 물소 등의 가축은 길러서 고기를 먹으며 가축은 마을 공동소유이다. 반 톤 노이 마을과 싸투아 느아 마을 내에 한 개의 작은 가게가 있다. 이 가게에는 비누, 샴푸 등의 간단한 생필품과 음료 및 스낵을 구비하고 있다.

(6) 요약

라오스는 선진국의 원조를 받아 도시를 중심으로 1995년도부터 발전하고 있다. 라오스는 총면적의 약 47%가 산림지대이기에 천연자원이 풍부하다. 하지만 천연자원의 개발이 미비하다. 프랑스 식민지 때에 전략적으로 시작된 커피를 비롯한 상업작물 재배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라오스는 자국의 경제 발전을 위하여 외국 기업의 원조를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 기업의 실질적인 참여와 기업 물색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한국 기독교 단체나 한국기업이 NGO나 비즈니스 또는 비영리단체를 통하여 라오스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다. 실제로 라오스에 진출해 있는 KOLAO⁶에는 이미 이를 통해 선교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다.

4. 생활분야

4. KOLAO 그룹 : KOREA와 LAOS를 합쳐 만든 이름으로 1996년에 라오스에 진출, 자동차와 오토바이 생산 및 판매, 시멘트 사업, 건설, 농장, 교육사업 등으로 현재 라오스 내 최대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향후에도 경제특구사업, 관광 및 레저사업, 조립사업, 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통하여 사업영역을 확대해 갈 계획이다.

(1) 개요

알락 종족의 생활 패턴은 자연의 순서와 함께 흘러가는 모습이다. 전기나 수도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실질적인 일과는 아침 해가 뜬 때부터 질 때까지 이루어진다. 새벽녘부터 닭들이 울어 이에 맞추어 사람들이 일어나 하루를 시작한다. 알락 종족은 커피 재배가 주 산업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인 남성들은 농장 일로 하루를 보낸다. 여성들은 주로 가사와 육아를 담당 하며 농장 일도 겸하여 한다. 10세 전후의 아이들은 오전 중에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한다. 씻을 때는 근처에 흐르는 냇가에서 펴온 물로 씻거나 남자들은 냇가에서 샤워를 한다. 전기는 들어오지 않지만 기름을 사용해 호롱불을 밝히기도 한다. 마을 길목에는 가로등이 없어 밤중에 이동하는 것은 어렵지만, 오토바이를 타고서 밤 길을 다니는 사람들이 몇 있다. 매일 같이 반복되는 일상은 다소 단조로움으로 다가가 청년들의 경우 특별한 일 없이 결혼을 일찍 하는 모습도 보인다.

(2) 식생활

알락 종족은 쌀을 주식으로 하며, 식사 때에는 찰밥(라오어 카우 니여우 / 알락어 - 바이)과 한 두 가지의 반찬을 차려서 먹는다. 찰밥을 먹을 때에는 대야에 물을 담아 서로간에 돌려가며 손을 씻은 뒤 밥을 한 움큼 집어 찰 지게 주물러서 반찬과 함께 먹는다.



〈그림Ⅲ-7〉 사탕수수 찌는 모습

반찬은 손으로 집어먹기도 하지만 국을 떠먹을 때는 숟가락을 사용한다. 닭, 돼지, 물소 등의 가축을 잡아서 요리하기도 하는데, 특별히 신년 행사 때에는 의식에 행해졌던 물소 고기 (알락어 - 싸커뷰)를 삶아 먹는다. 또한 축제 때에는 ‘카우 땀’이라는 음식을 해먹는데, 이것은 찰밥과 찜은 쿡으로 만든, 원형고깔 모양의 바나나 잎으로 찐 15cm정도 크기의 음식이다.

또한 쌀로 만든 전통 술이 있어 손님 접대시 내놓는다. 마을 주변 숲에는 그 물을 쳐 놓아 나무에 달린 꽃의 꿀을 먹으러 온 박쥐를 잡아서 먹곤 한다. 큰 나무에 홈을 파고 2m정도 길이로 다듬은 나무 대를 쪼고 줄을 연결해 발로 밟고 손으로 누르는 일종의 기구가 있는데 맞물리는 홈에 사탕수수를 집어넣고 찜어 단물을 받아 모은 뒤 끓여서 자급자족 정도의 설탕을 얻는다. 이들은 냉장고가 없어 박과 비슷한 호리병을 사용하여 그 안에서 생성된 시원한 물을 마신다.

(3) 의복

알락 종족의 평상복은 종족 고유의 전통의상이 아닌 현대식 복장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옷은 오랜 기간 닳아 많이 남루하다. 깨끗한 새 옷을 입은 아이들도 몇 보였지만 흙먼지로 인해 대부분 빛이 바래거나 조금씩 해진 옷을 입고 있었다. 초등학교 학생들은 흰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계통의 바지로 된 교복을 입었다. 예전에 군인으로 징집되었던 재향군인이었는지 몇몇 성인 남성들은 군복을 입고 있었다. 속옷의 경우, 일부 여성들은 브라지어와 같은 상의 속옷을 입고 있다. 전통의상을 입은 사람은 거의 없지만, 여성들의 경우 전통 치마를 자주 입는다. 전통치마는 가장자리에 문양이 들어가 있으며 길이는 발목까지 내려온다. 새해 축제 기간에도 전통의상을 입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전통의상이 자취를 감추었다고 예상할 수 있다. 신발의 경우 어른들은 대부분 신고 있지만 아이들은 대다수가 맨 발이거나 조리와 같은 형태의 낡은 슬리퍼를 신고 있다. 기존의 문서나 사진자료를 보면 알락 종족 여성들이 얼굴에 문신을 하였지만, 실제로 현재는 얼굴에 문신을 하는 여성들은 없다.



〈그림Ⅲ-8〉 성인들의 일상복



〈그림Ⅲ-9〉 학생들의 교복

(4) 주거

알락 종족은 마을 가운데에 사당을 중심으로 원형으로 둘러서 야자나무를 심고, 나무와 짚으로 만든 가옥을 세운다. 가옥의 배치는 사당 곁 마을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중심으로 10여 개의 가옥들이 둥그렇게 배치되어 있고, 길을 중심으로 양 옆으로 집이 세워져 있기도 하다. 가옥의 형태는 땅에서 약 2~3m 정도 공간을 내어서 지은 주상가옥이며, 이 가옥은 후덥지근한 기후에 적합한 구조이다. 가옥의 밑 공간은 가축사육 및 창고로 사용하고, 2층은 주거로 사용한다. 가옥은 주로 나무를 사용하여 짓고, 기둥의 밑둥은 시멘트를 사용한다. 벽의 형태는 가정형편에 따라 나무로 짜맞추거나 대나무를 얇게 잘라 수를 짜듯이 엮어서 두 겹으로 만들었고, 그 틈으로 바람과 빛이 통하게 한다.

냉난방 시설은 전혀 없고, 지붕은 짚을 엮기도 하고 양철지붕을 올리기도 한다. 집 내부는 계단으로 올라가면 먼저 거실이 나오고, 거실을 제외한 공간은 각 방으로 나뉜다. 대나무로 엮어서 내벽을 만들고 문까지 단 방도 있지만, 천을 사용해서 방을 나누기도 한다. 부엌은 보통 방과 떨어져서 옆에 분리되어 있는데, 개방된 다리로 연결되어 있다. 부엌은 창이 거의 없고 어두우며 화로가 있고, 설거지를 할 때는 부엌에서 하지 않고 연결된 다리 부분에서 한다. 출입 계단이 주거실 뿐만 아니라 부엌 쪽으로도 있다. 청년들이 모이는 공간이 있고, 1층에 평상을 두고 사람들이 앉아서 쉬기도 한다. 화장실은 집과 분리되어 있으며 공동으로 사용한다. 가옥마다 명패가 붙어 있어서 번호가 적혀있고, 어떤 집은 벽에 달력포스터나 UNICEF 포스터, 또는 공산당원의 사진이 있는 포스터가 붙어 있다. 몇 집에는 벽걸이 시계와 본인이나 부모의 초상화가 걸려 있고, 거울과 낡은 재봉틀 기계가 있는 집도 있다. 촌장 집의 경우 다른 집에 비해 좋은 목재를 사용한다. 알락 종족 마을 근처에 카투족 마을이 있는데 주거 및 가옥의 형태가 많이 비슷하다. 쉼쑤주의 알락 종족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의 도심지 부근 가옥들은 벽돌이나 시멘트로 지어졌고, 공동 생활을 하는 알락 종족과는 다르게 집집마다 울타리가 쳐 있다.



〈그림 III-10〉 원형의 마을 구조



〈그림 III-11〉 나무 벽의 집



〈그림 III-12〉 계단



〈그림 III-13〉 일반적인 가옥 구조



〈그림 III-14〉 부엌 내부

(5) 위생의료

라오스는 10만명 당 59명의 의사가 존재한다. 500명에 달하는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적은 수치이다. 또한 적절한 위생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인구 비율은 24%이며, 청결한 생활 용수를 쓸 수 있는 인구 비율은 43%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라오스 인의 평균 수명은 세계적으로 낮은 54.7세이다. 알락 종족의 각 마을 사이에는 정부에서 관리하는 보건소(Clinic)가 존재한다. 보건소의 시설은 기본적인 구급처치만 가능한 정도이고, 환자의 상태가 심각할 경우엔 먼 곳에 위치한 큰 병원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하지만 저녁 이후에는 병원과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다. 보건소에 공중 보건, 가족 계획과 관련된 여러 국제 기구들의 포스터가 붙어 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그에 관한 홍보는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보건소의 간호사들은 보건소 옆에 거주지를 두어 상주한다. 과거에 알락 종족은 숲 속이나 주변 덤불에서 용변을 봤지만 지금은 위생 상식이 넓게 보편화되어 각 집마다 화장실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화장실은 기본적인 세안 시설이 비축되어 있지 않고 대소변만을 해결할 수 있는 좁은 공간이다.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후에 옆에 놓여져 있는 양동이에서 물을 퍼서 변기에 부어 변을 내린다. 내부에 전등이 없어서 밤에는 사용시 불편하나 램프나 배터리를 이용한 전등을 사용한다.

과거 위생 상식이 부족하였을 때에는 질병에 걸린 것이 귀신에게 죄를 지어 그에 대한 대가인 줄 알고 귀신에게 치료해 주길 빌거나 종교지도자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병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현대 의술을 갖춘 보건소를 찾아간다. 출산의 경우, 예전에는 산파를 불러서 출산을 하였는데 근래에는 대부분 병원에서 출산을 한다.

알락 종족의 질병 중 말라리아 감염이 80%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 중에 말라리아로 인한 위장장애로 고통 받는 사람이 많다. 알락 종족에겐 말라리아 감염 예방과 치료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말라리아 감염의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재배 농장에 말라리아 모기가 많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라오스에서 여러 국제 NGO들의 위생과 관련된 생활 개선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알락 종족 마을에서는 스웨덴 SIDA 프로젝트와 VDB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SIDA 프로젝트는 각 지역에 화장실을 만들어주거나 여러 위생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를 한다. VDB 프로젝트는 방콕에 센터를 두고 의료분야에 집중하여 주로 학생들을 치료한다. 뿐만 아니라 교과서와 옷가지를 전달해 주는 등 다방면으로 활동 중이다.

(6) 환경과 물

알락 종족의 하수처리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 상하수도 시설이 없고, 마을 한 가운데

땅에 수로를 터 놓은 것이 있다. 이 물길은 돼지, 닭과 같은 가축들의 접근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데, 이런 비위생적인 하수처리방식이 가축들에게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알락 종족 마을에는 마을 공동으로 쓰이는 지하수 펌프(알락어 - 닥슽)가 약 세개 정도 설치되어 있다. 이 펌프에서 끌어 올린 지하수를 끓인 물이 주요 식수와 약간의 생활 용수로 사용된다. 설거지를 할 때는 지하수가 사용되고 샤워, 빨래와 같은 대부분의 생활 용수는 주변 강물을 사용한다. 한 해 중 건기 때는 지하수가 말라 물이 부족하다. 또한 가끔 펌프가 고장 나서 불편을 겪는다.

(7) 교통

최근에 알락 종족은 주요 교통 수단으로 스쿠터(오토바이)를 이용하며, 소와 말 같은 가축을 이용하는 사례는 찾아 보기 힘들다. 가까운 지역은 주로 도보나 오토바이, 경운기로 이동하며 시내, 도심지와 같이 먼 곳을 갈 경우에는 주로 트럭, 버스를 이용한다. 큰 도시를 잇는 도로는 포장되어 있으나 반 톤 노이 마을과 같이 중소형 마을로 들어가는 길은 여전히 비포장도로여서 이동할 때 흙먼지로 인해 뒤따라오는 이들의 호흡과 시야확보를 어렵게 한다. 라오스에는 철도 시설이 없다.

(8) 대중매체 보급률

전기관련 사회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전기 보급량은 적지만 대부분의 마을에는 보급된다. 대부분의 가정은 전등으로 조그마한 전구를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호롱불이나 배터리를 이용한 손전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마을 당 한 대 정도의 TV, 카세트 플레이어, 레코더가 구비되어 있고 DVD가 있는 곳도 있다. 그러나 컴퓨터는 찾아보기 힘들다.

라디오는 날이 갈수록 마치 인터넷처럼 많은 소수민족들에게 널리 보급되고 있다. Hmong, Khmu, Bru, 알락 종족 사람들에게 알려진 라디오 방송도 있다. 많은 이들이 이런 방송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고 있다. 하지만 방송 시간과 프로그램이 제한적이다. 라오 어, 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여러 소수민족 사람들을 위한 이러한 방송 프로그램들이 더 많아져야 할 것이다.

(9) 요약

알락 종족의 생활상은 쌀을 주식으로 하는 식생활과 전통 의상이 아닌 현대 의상의 모습

이다. 원형의 공동체적 마을 형태에 지상 2m정도의 기둥 위에 집을 짓는 전통 가옥 구조의 주거양상을 보인다. 알락 종족과 같이 지방의 종족들에게 가장 취약한 것은 위생 의료 부문이다. 현재는 정부의 지방 보건소 건립과 NGO들의 프로젝트에 힘입어 위생의 개념 전달과 화장실의 건립이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에 막연히 신앙을 빌어 치료하던 말라리아와 같은 주요 병들에 대해서도 현대의술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실제적인 치료와 위생관리를 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런 보건소와 화장실 등의 현대적 구조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위생 의식과 상하수도 시설의 부재로 인한 위험요소가 여전히 산재한다. 교통수단은 마을 내 가정들에 오토바이 정도로 구비되어 있지만 버스와 같은 노선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시외도로에서 만날 수 있다. 전기시설이 있으나 아직 보급량이 부족하고, 가로등이 없어 밤에는 칙흑같이 어두워 사람들의 이동이 적다. 알락 종족 마을에서 접할 수 있는 대중매체로는 라디오가 보편적이고, 간혹 위성 TV나 DVD가 있는 집이 있다.

알락 종족이 비록 아직 개발되지 못한 지방지역의 마을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시장과의 커피 상품거래와 NGO의 프로젝트 같은 자의적, 타의적인 접촉과 장거리 교통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점이 외부인을 통한 복음과의 접촉을 가능하게 하며, 라디오의 보급이 이루어진 점에서 라디오 방송을 통한 복음전파의 기회를 엿볼 수 있다.

5. 사회분야

(1) 내용



〈그림III-15〉 마을 한 가운데 위치한 쿠완

각 마을의 리더십은 촌장과 부촌장이다.

알락 종족 대부분의 가정은 10명이 넘는 대가족 형태이다. 한 가정에 6~8명의 아이들이 있으며, 조부모와 친척이 함께 산다. 라오스에서는 일부일처제를 법으로 제정하여 대부분 일부일처이지만 인구의 5~10%의 가정은 일부다처이다. 각 마을이 가까운 친척으로 구성된 집성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정 내 의사결정권은 남성에게 있다. 마을 내에 토의할 의제가 있을 때에는 마을 한 가운데 위치한 ‘쿠완’이라고 불리는 사당에서 성인 남자들이 모여 음식(물소와 맥주)을 먹으며 토의를한다.

촌장은 공산당원, 부촌장은 비밀경찰인 경우가 많다. 지방 마을과 중앙 정부와의 관계는 6개월마다 한번씩 촌장이 마을 경제상황을 포함한 전반적인 마을의 상황을 행정부(도시에 있는 관청)에 보고하여 중앙 정부와 연계한다.

알락 종족과 타 종족 간의 관계는 매우 우호적이다. 서로 다른 종족이라는 구분이 없을 정도로 가깝게 지낸다. 또한 다른 종족과 결혼을 비롯한 여러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커피 재배와 논 이모작과 같이 많은 노동력이 필요할 때에는 다른 종족과 상부상조한다. 또한 축제 때 함께 회포를 나눈다. 손님 접대 시에 남성들이 모여 대화에 참여하며 여성들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다. 여성들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며 남성들은 잡은 가축을 다듬는다. 가정 내에서 여성의 역할은 어머니로서 가정 내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며, 대외적으로는 남성과 별반 다르지 않게 농작업(이모작, 커피재배)을 돕는다.

(2) 요약

가족구조는 대부분 일부일처로 같은 종족끼리 마을을 형성하여 살고 있다. 알락 종족의 의사결정권은 남성, 그 중에선 촌장에게 있으며 촌장은 공산당원이며 부촌장은 비밀경찰인 경우가 다반사이다. 여성의 주로 가사를 담당한다. 주변 종족과는 서로 일손을 돕고 혼례를 하기도 하며 우호적 관계를 가진다.

알락 종족 마을의 최종 결정권한은 촌장에게 있기에 촌장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마을의 구성원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릴 것이다. 또한 카투족과 같은 주변 종족과의 관계가 우호적이므로 주변 종족에도 복음이 미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6. 문화분야

(1) 개요

알락 종족만의 고유한 문화는 찾아 보기 힘들다. 이들의 전반적인 문화는 저지대에 거주하는 라오족과 흡사하다. 하지만 연초에 열리는 축제 때 거행되는 ‘물소 제사(Buffalo Sacrifice)’와 같은 특별한 행사가 있다. 이 축제 기간엔 물소를 잡아 물소 고기를 나누어 먹고, 술을 함께 마신다. 프랑스 식민지 시절, 프랑스인들에게서 넘어온 커피재배 방법과 더불어 그들의 향락적인 문화의 영향으로 음주와 사교 문화에 익숙해 졌다는 의견도 있다. 도시와 떨어진 조용한 외곽 지역에서 이른 나이부터 시작되는 농장 일이 삶의 단조로운 일상이 되어 조혼이 성행한다.

(2) 명절, 축제오락

매년 연초마다 축제가 열린다. 축제 명칭은 라오편어로 본 카오 마이(Boun kao mai), 알락어로 자자레야(Jajaleya)라고 한다. 이 축제의 가장 큰 핵심은 '물소 제사(Buffalo sacrifice)'이다. 축제가 되면 물소를 사당이 있는 마을 한 가운데서 잡고, 귀신에게 마을을 보호해주길 빈다. 물소를 잡을 때 남자들은 나무로 만든 가면을 쓰고, 창을 들어올리면서 물소 주위를 돌며 춤을 춘다. 그리고 캔이라는 악기와 징과 유사한 악기를 축제 때 사용한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복을 빌어 주면서 물소 고기를 나누어 먹고, 전통술과 맥주를 마신다. 이 물소 제사는 라오스에서 잘 알려져 있다. 그리고 아이들은 고무줄을 따는 오락을 한다. 놀이 방법은 땅바닥에 사방 사각형을 그린 다음 사각형 안에 고무줄을 5개 정도 놓고 2,3명이 신을 던져서 고무줄이 사각형 바깥으로 나가면 따는 것이다.

(3) 결혼과 장례

알락 종족 사람들은 보통 18세에서 20세의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한다. 이러한 조혼이 일반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젊은이들은 다른 진로나 장래에 대한 소망이 자신들의 열악한 생활 여건상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농장일과 같은 반복되는 일상에서 별 다른 낙을 느끼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한다. 즉, 젊은이들의 발전된 미래를 뒷받침해 줄 수 없는 어려운 환경 때문에 조혼이 성행하게 되었다.

(4) 예절

보통 인사할 때는 두 손을 합장하듯이 모으고 가벼운 목례로 인사를 한다. 고개를 많이 숙여 상대방에게 정수리를 보일수록 공손한 표현이다.

손님이 방문하면 주인이 술과 담배를 권하는데, 권하는 술을 마시는 것이 예의이다. 술을 마실 때는 컵 하나를 같이 차례로 돌려 마시며, 주인이 손님에게 술을 권하기 전에 따라서 모든 손님들에게 복을 빈 후 먼저 마시고 그 다음 손님들에게 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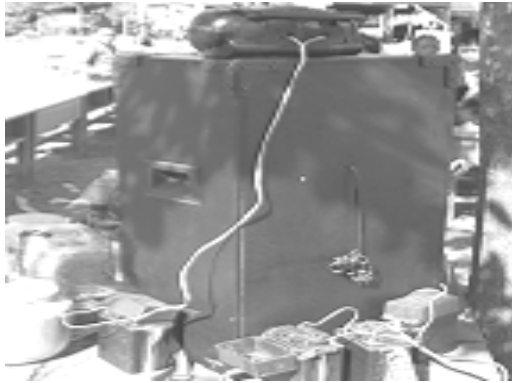
(5) 대중문화

알락 종족 마을들에는 아직 컴퓨터가 보급되지 않았고, 따라서 인터넷은 전혀 없다. 하지만 TV는 각 마을에 한 대 꼴로 구비되어 있고, 간혹 DVD도 있다. 또한 라디오는 알락 종족 내에 많이 보급되어 있다. 새해 축제 기간에는 마을 중심부에 놓여있는 여러 탁자와 의자들 위

에 큰 스피커와 라디오를 놓고 흥겹게 가요를 즐기는 마을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전통 민요보다 가요가 더 많이 불리고 있다.

(6) 관광지 소개

타드로(Tad Lo)폭포는 라오스 중남부 살라반주에 있으며, 볼로벤 고원 테두리 쪽에 존재한다. 이 폭포는 타드로라는 지역에 있으며, 뻑세에서 약 90km정도 떨어져 있다. 타드로지역 주변에 위치한 라맘이란 도시를 거쳐서 이 곳을 방문하면 용이하다. 이곳에서 지역 주민들이 운영하는 게스트 하우스를 이용할 수 있고 또한 직접 만든 수공예품을 구매할 수 있다.



〈그림Ⅲ-16〉 라디오와 스피커의 구비 현황



〈그림Ⅲ-17〉 타드로 폭포

(7) 요약

알락의 문화에서 특징으로 손꼽히는 것은 신년에 벌어지는 물소 제사이다. 정령신앙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이 제사의식은 한 해를 마치고 그간 서로 돕고 협력하며 일한 마을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회포를 풀고, 먹고 즐기는 축제로 이어진다. 이 기간에 켄과 징 모양의 악기들이 연주되고, 물 담배, 쌀로 만든 전통술들이 오고 간다. 손님 대접을 공손히 하며, 웃어른과 남녀간의 질서가 평온히 이루어져있다. 마을 공동체의 모습을 잘 유지해 가고 있다.

7. 교육분야

(1) 내용

라오스의 학제는 11학년제로 초등교육은 의무 5년, 중·고등교육은 6년이다. 라오스의 대학교는 종합대학, 의과대학, 공과대학이 1개교씩 존재한다. 1999년도 기준으로 대학 취학률은 72.4%, 수료율은 41%이다. 15세 이상 문맹률은 43%이다.(1999년 조사)⁷

라오스는 종래 중등 이상의 교육은 프랑스의 원조에 크게 의존해 왔다. 대부분의 교육시설이 열악하여 많은 국민들에게 교육받을 기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지 못한다. 또한 국민들의 교육열도 높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1975년 이후 정부는 학교 증설, 교사 양성 등 교육에 대한 질적, 양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그림 III-18〉 알락 종족 마을의 초등학교

여러 마을의 아이들이 올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곳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다. 초등학교생은 교복을 입고 등교하며 교복은 흰색 와이셔츠와 검은색 바지, 여자는 치마를 입는다. 알락 종족은 초등학교만 의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대다수 성인들의 최종학력은 초등교육에 머무른다. 이처럼 낮은 교육 수준의 이유로는 멀리 떨어진 중·고등교육 기관의 낮은 접근성과 마을에 남아 자신들 부모의 업을 이어 받아 농업에 종사하는 생활상을 꼽을 수 있다. 알락 종족은 대부분 초등학교만 다니고 부모의 커피 재배 등의

농업을 물려 받는다. 도시로 진출하고 싶은 소망도 있지만, 재정 상황이나 친지가 없는 상황 등의 어려움으로 대부분 마을에 정착한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교육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쉽게 복음을 접할 뿐만 아니라 그 땅의 인재로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장학금 제도를 마련하여 재능이 있는 학생은 도시로 진출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는 방법도 있다.

8. 종교분야

(1) 개요

⁷ UN Development Program (www.undp.org), 라오스 교육 분야에서 검색. (검색일자:2007-1-25).

라오스의 주요 종교는 건국 당시 크메르 족의 영향을 받아 캄보디아를 통해 전해진 소승불교이다.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소승불교가 국민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라오스 내 불교의 영향력은 다른 종교에 비해 매우 크다. 라오스 공산화 당시 막스-레닌주의자들에 의해 모든 종교가 통제되었던 시기가 있다. 하지만 라오스 사람들에게 불교는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림 III-19〉 의식에 쓰이는 물소 머리

알락 종족의 마을들 한 가운데는 쿠완이라는 귀신을 위한 사당 건물이 있다. 이들이 믿는 귀신을 위한 사당은 일반적인 정령신앙에 해당하는 숭배소이다. 사람들은 귀신의 특정한 형태나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지만, 단순히 도움을 구하면 그들이 가진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는다. 축제 때 새벽에 숲 속에 가서 귀신에게 바치기 위해 밥을 놓고, 축제 기간 동안 물소를 잡아 물소 머리를 귀신이 먹는다고 믿어 쿠완 지붕 밑에 놓는다. 이들은 집 내부의 벽에 물소의 머리뼈나 새끼 돼지 머리뼈를 걸어 놓아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기원하는 전통

의식이 있다. 이 의식을 알락어로 ‘히드’라 한다. 작은 히드는 돼지 머리뼈, 큰 히드는 물소 머리뼈에 해당한다. 말라리아와 같은 심한 병에 걸렸을 때는 물소 머리뼈로 귀신에게 치료를 빈다.

라오스 정부는 라오스 내 소수민족들에게 이들이 일반적으로 숭배하는 정령신앙 대신 불교를 믿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산주의인 라오스의 정치적 상황이 모든 국민의 일체화를 위한 일환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불교를 선택하여 모든 국민에게 불교를 숭배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알락 종족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알락 종족 마을들 중 기독교 가정이 2호 있었다. 그러나 정부의 압력으로 이들은 불교로 개종하였다. 불교를 강요하는 라오스 정부의 정책이 라오스 내 기독교 복음화를 방해하고 있다.

(2) 종교현황

알락 종족은 카투족과 함께 매년 초에 물소 제사 의식을 행한다. 이런 종교 의식은 병자와 재난 혹은 흉작이 들었을 때에 그 원인이 귀신을 성나게 한 것이라고 믿는 정령신앙에서 비롯된다. 제사를 통해 귀신이 성내는 이유를 알아내고 달래려는 목적으로 의식을 행한다. 하지만 귀신에 대한 정체는 뚜렷하지 않고 막연히 마을을 지켜주는 역할에 머물러 있다. 정령신앙의 가장 중요한 분야였던 치료 분야에 있어서 현대 의술을 접하면서 정령신앙도 점차 수그

러드는 추세이다. 마을에 종교지도자가 한 명 있으며 지도자는 마을의 처소를 돌아다니며 정신적으로 구성원들의 어려움을 살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현재 종교 지도자는 정신상태에 문제가 있어서 활동하지 않고 있다. 마을에는 나무로 지어진 ‘쿠완’이라는 사당이 존재한다.

(3) 종교특징

알락 종족의 정령신앙은 마을 중심에 쿠완이라는 사당을 만들어 마을의 수호 귀신을 모신다. 특이점은 신년 초 행사에 마을의 수호 귀신에게 물소를 잡아 바치며 마을의 안녕을 비는 의식을 치르는 것이다. 이 날은 아침에 밥을 하고, 물소를 잡아 숲에 가서 귀신에게 바친다. 물소를 잡는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이들은 땅에 심겨져 있는 나무를 150cm정도로 다듬는다. 윗부분은 입을 벌린 얼굴과 같이 조각하는데 양면에 물소를 죽인 두 사람의 얼굴 모양을 그리고 이름을 쓴다. 또 얼굴 조각상의 입과 머리 주위에 희생된 물소의 피를 칠한다. 물소를 잡는 것은 먼저 축제 아침 7시경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인 가운데 조각된 나무에 물소를 메고 마을 사람 중 선하다고 여겨져 선택된 두 사람이 물소의 목을 베어 죽인다. 물소를 다시 각 부분으로 자르고, 머리와 몸통 일부를 쿠완 사당 양쪽 천장 모서리 안쪽에 넣고, 마을 사람들은 귀신에게 자신의 건강과 삶의 보호를 함께 빈다. 마을 사람들은 함께 모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즐긴다.

이들의 종교의식은 궁극적으로 날씨나 건강과 같은 이들의 생활에 관련하여 복을 비는 것이다. 보통 이런 의식은 주로 종족의 행사로 행해지며, 사람들의 사당에 대한 태도가 경건하지는 않다. 개별적인 신실한 신앙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병이 났을 경우 막연히 귀신에 대한 잘못으로 생각하여 회복을 위해 종교리더에게 의지하여 귀신에게 치유를 비는 모습이 있다. 신앙의 범위가 삶의 의미나 내세 정도가 아니라 생활의 어려움과 치유에 국한 되어있다.

(4) 종교 지도자

종교 지도자는 마을의 연장자 중에서 선출한다. 선출 과정은 먼저 쌀을 손에 집은 후에 손가락을 모두 펴서 가장 쌀알이 많이 남은 자가 종교 지도자로 선출된다. 선발된 종교 지도자는 치유사역을 하는데 치유 사역의 모습은 달걀을 몸 위에 깨어 형상을 보고 병명을 추측하여 환자를 진단하는 것이다. 선출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종교에 관련된 종교서적으로 공부한다. 병이 치유되길 원하는 환자들은 이 종교지도자를 찾아간다. 종교지도자는 이들에게 치유를 행함으로써 신임과 명성을 높인다.

(5) 정치와 종교의 연관성

라오스는 종교를 탄압해야 할 공산국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통합하려는 일환으로 모든 국민들이 정령신앙이 아니라 불교를 믿기를 권한다. 알락 종족 역시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따라 불교를 믿을 것을 강요 받고 있다. 그러나 알락 종족 마을의 촌장은 이러한 정책에 반대한다. 이런 촌장의 반대로 알락 종족 마을 내에선 불교의 영향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들이 아직 불교를 믿지 않는 것으로 보아 라오스 중앙 정부의 종교에 대한 영향력이 촌 내에 강하게 미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6) 기독교 개요

마을 주민으로부터 종족 내에 2개의 크리스천 가정이 있었다는 정보를 확인하였다. 이는 알락 족이 복음과 접촉한 전례가 있음을 알려준다. 하지만 크리스찬이었던 이 두 가정은 정부의 탄압으로 다시 불교로 개종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모든 마을 주민들이 신년축제 본 카오 마이(Boun kao mai)에 참석하였는데 그 두 가정은 축제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알락어로 된 성경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오어로 된 기독교영화는 있지만 알락어로 된 기독교 영화는 없다. 알락어로 된 복음 음성 파일은 특정 인터넷 홈페이지⁸에서 들을 수 있지만 알락어로 된 복음파일이 방송매체로 나가지는 않는다. 조사지역의 알락 종족 마을에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다.

(7) 기독교 사역단체(선교단체, NGO)

라오스에서 SIDA(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의 지원을 받아 활동하는 NGO 및 선교단체로는 the Olof Palme International Centre, SHIA(the Swedish Organisations of Disabled Persons International Aid Association), SMC(Swedish Mission Council)가 있다.

라오스의 지식과 기술의 부족은 종종 모든 발전의 시작에 대한 결정적인 장애물로 언급된다. 특히 소녀와 소수민족은 교육 시스템에서 배제되며 어린 인구의 반정도가 문맹이다. 따라서 SIDA는 라오스의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여러 지역에서 두 국가 간의 협

⁸ 인터넷 사이트 <http://globalrecordings.net> 에서 복음방송을 청취할 수 있다.

력이 새롭게 겨냥되고 있다. SIDA는 도로 건설을 도우면서 건물을 짓고, 도로 간수에 있어서 계획, 조달, 제어를 하고, 도로 향상을 위해 지방의 도로망을 유지하는 것을 돕고 있다. 라오스는 또한 나라의 중요 간선 중의 하나인 고속도로의 복구에 사용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 있다. 라오스 인구 절반 정도의 생활이 도로가 닿을 수 없는 고립된 마을에서 이루어 지기 때문에 접근이 쉬운 도로들은 경제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7개의 주 전체에 도로 간수와 건축, 제도적 발전을 위해 도로 구역의 개혁은 월드 뱅크와 SIDA의 후원으로 재정이 조달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라오스에 대한 스웨덴 개발 기구의 주요한 목적은 빈곤을 줄이고 빈부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자체 지속 가능한 경제 수준까지 라오스의 경제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8) 요약

이들의 종교는 정령신앙에 해당하는 단순한 형태의 기복신앙이다. 알락 종족이 숭배하는 귀신은 특별한 형체나 의미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매우 원시적인 종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알락 종족은 그들이 믿는 귀신을 위한 사당, 쿠원을 마을 한 가운데에 세우고 새해 축제 때 물소로 제사를 지낸다. 또한 종교지도자들은 마을 연장자 중 선출되며 이들은 환자들의 질병을 치유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근래에는 이러한 치유 역할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오스 정부는 이들에게 정책적으로 불교를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알락 종족 내에는 불교가 정착하지 못했다. 한편 라오스 정부의 불교 일체화 정책이 복음 전파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선교적인 측면으로는 이들에게 우리의 복음이 다소 생소할 것이라 예상된다. 정령신앙에 해당하는 단순한 기복신앙을 믿어온 알락 종족에게선 선조부터 믿어왔던 귀신이 흉년, 질병과 연관되어있다고 생각해왔던 그들의 사상이 깨지기 위해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물소를 희생하는 제사 의식에서 물소의 죽음을 통해 귀신에게 잘못했다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대속의 개념이 십자가의 의미와 유사한 부분이 있어 오히려 더 쉽게 이해될 수도 있다.

IV. 알락 종족의 선교전략

1. 선교의 방해요소

(1) 외부적 요인

1) 기독교에 대한 반감

라오스는 식민 기간 동안 복음이 전래되었다. 이때 서구 제국주의의 부정적인 영향들이 기독교가 연결되어 라오스 사람들에게 이해되었다. 그래서 아직도 복음에 대해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소수민족을 분열시키고 국가의 혼란을 일으키는 종교로 경계의 대상이 되어 있다. 기독교가 가지는 서구 종교라는 고정된 이미지는 후기 식민시대의 도래 가운데 아시아에서의 복음 전파에 최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었다.

2) 선교제한국가

종교적인 상황에 있어서 라오스는 기독교 선교에 배타적인 중국의 영향을 받고 있다. 실제 라오스는 여느 선교 제한 국가들처럼 선교사 비자를 허가하지 않으며, 외국 선교사들이 현지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선교하는 것을 크게 제약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식적으로 교회를 개척하거나 전도 집회를 하는 일들도 크게 제한 받게 된다.

3) 접근의 어려움

라오스는 폐쇄적인 공산주의 국가로 원칙적으로 현지 주민과 외부인이 함께 생활하고 관계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선교사의 직접적인 접촉과 현지인과의 공동체 생활이 힘든 편이다. 또한 외부인인 선교사는 마을의 촌장과 비밀 경찰에 의해 활동의 많은 부분들을 감시 받게 된다.

4) 토속신앙

전통적으로 정령신앙을 가진 알락 종족에게서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에 대한 불신을 예상할 수 있다. 알락 족 사람들은 대부분 일평생 농업에 종사하므로, 토지의 상태와 기후와 관련한 기복신앙 형태의 정령 또는 귀신을 숭배한다. 물론 이 지역을 주관하는 이 종족의 귀신과 비교하여 더욱 큰 권능을 가진 창조주 하나님은 이들에게 환영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조상 대부터 계속해서 숭배해온 귀신이 자신들의 화복을 주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귀신

의 별을 두려워하여 쉽사리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 내부적 요인

1) 언어의 한계

라오스에는 다양한 종족들이 여러 지역적 방언을 사용하며 거주하고 있다. 알락 족의 경우 노년층을 제외한 성인 일부와 아이들은 표준어인 라오어를 구사할 수 있다. 따라서 라오어로 번역된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언어의 한계는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지 사역을 위해선 물론 라오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정도의 어느 정도의 학습이 필요하다. 또한 선교와 관련하여 보다 풍부한 문서 자료를 얻기 위해선, 태국어를 습득하는 것도 또한 필요하다.

2. 선교전략

(1) 복음의 접촉점

1) 라오스의 필요

정치적 독립과 빈곤 탈출을 위해 국가적으로 제시된 공산주의와 불교가 의료, 사업, 윤리, 사회 풍조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해 궁극적이고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라오스 내에는 새로운 변화에 대한 갈망과 해결책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세계화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급격하게 변화는 정치, 경제의 흐름이 라오스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총체적인 선교의 관점으로 이들의 실질적인 필요와 문제를 해결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다. 현재는 무엇보다 이들의 실질적 문제와 필요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몇 가지 구체적인 예시로는 직업훈련(재단, 직조, 컴퓨터 기술, 언어 훈련 등) 프로그램과 병원, 보건소, 농촌 지역에 대한 의약품 제공, 부랑아들을 위한 개발 프로그램, 교양서적 및 기독교 서적의 번역사업 등을 들 수 있다.

2) 교육 - 장학사업

알락 족은 초등교육 의무 5년을 마치고, 대부분 진학하지 않는다. 진학하지 않을 경우, 대부분 부모의 농장 일을 돕거나 생계를 위해 일한다. 이렇게 교육 여건이 힘든 상황에서 장학 사업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인성이 좋고, 공부에 의욕이 있는 학생을 택하여 집중적으로 재정적인 면에서 후원해주고,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하여 인재로 양성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복음을 전하여 그 학생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알락 종족, 나아가서 라오스 땅에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리라 기대된다.

3) 대중매체 - 라디오

알락 족 마을에 카세트가 어느 정도 보편화 되어 있고, 그들은 라디오를 즐겨 듣는다. 또한 그들은 원래 알락어를 사용하지만 세대를 거칠수록 표준어인 라오어를 사용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라오어로 성경을 읽어 녹음한 테이프와 찬송가 또는 찬양 곡이 녹음된 테이프를 보급하는 것이 복음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라오스의 전통적인 리듬과 비슷한 찬송가나 찬양을 택하여 녹음하여 전해주는 것도 그들의 흥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4) 성공사례(Case Study)

● 축구 센터, K선교사님

공산주의 국가로서 전도가 금지된 라오스에선 선교사라는 신분으로써 직접적인 사역을 수행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 따라서 K 선교사님은 ‘축구 센터’라는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라오스에 복음을 전하고 있다. 축구라는 운동은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라오스에서도 특히 인기 있는 종목이다. 각 지역에서 축구에 소질이 있는 아이들을 선출하고 선출된 아이들은 이 곳 A 축구 센터에서 모두 합숙하며 훈련을 받는다. 이 곳에 오는 아이들 대부분이 술과 담배, 마약 등에 빠져 세상과 가정에서 버림받아 방황하던 아이들이었지만 K 선교사님 부부와 함께 합숙하며 이들의 헌신과 사랑, 제자 훈련을 통해 빛과 소금과 같은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변화되었다. 앞으로는 이 전문인 사역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에서 축구 교육자 교육 수장을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 센터의 학생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 받고 준비되어 다시 라오스의 각 지역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주님의 통로로 세워질 것이다. 또한 이들이 자신의 민족과 나라에 대한 의식을 키워가고 있기 때문에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었을 때는 라오스의 다음 세대를 이끌 크리스천 리더십들로 세워질 것이라 여겨진다. 이 들을 통한 라오스 종족의 복음화를 기대한다.

● 영어, 예능 관련 학원, P 선교사님

라오스 남부 도시 P선교사님은 K 선교사님과 비슷한 방식의 전문인 선교 사역을 수행하고 있다. 라오스에 있어서 실질적 필요인 교육을 매개로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특히 예능

계열 교육으로 접근하여 큰 효과를 거두었다. 초기에는 1명의 선교사가 영어와 피아노 등을 10명도 되지 않는 아이들에게 가르치던 조그마한 학원이었으나 현재는 분업화된 여러 교사들 아래 100명이 넘는 인원이 교육을 받는 등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였다. 더 나아가 교육 사업의 발전적 진행가운데 신학교와 같이 라오스의 현지 사역자를 양성할 교육 기관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선교전략 제언

라오스는 사회주의 국가로서 국가가 국민의 종교 활동, 집회,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 매년 발표되는 종교탄압과 선교활동제한 순위를 보면 늘 극심한 어려움을 나타내는 3-5번째 순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현지 사정에 맞는 실질적이고도 창의적인 선교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실제 라오스 현지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은 여러 모양과 방식으로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1)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NGO활동

베트남과 더불어 라오스는 제한접근지역으로 안정적인 비자발급과 지역 복지를 위해 NGO의 활동이 적극 요청된다. 주로 선교사가 들어가기 어려운 국가들에 대해서는 NGO 활동을 통한 입국과 비자취득이 일반인의 경우보다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다. 선교학적 차원에서 본 NGO 사역은 인류사회 전반에 걸친 하나님의 정의와 화해, 해방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크리스천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온전하여 지려는 노력이다.⁹ 나아가 신속한 복음화에 있어 기대되는 NGO의 사회봉사의 모습은 ‘복음 전도의 효시’로 순간마다 주님의 사랑과 향기를 나타내며 현지인들과 관계해나가는 것이다. 더불어 말씀으로 분명한 정체성이 확립된 NGO가 된다면 선교에 있어 대 정부관계에 있어 중립적 위상을 지니면서도 복음 전파의 토대와 확산의 기점으로 중요하게 쓰일 것이다.

2) 농업 전문인 선교

라오스는 프랑스에 의한 식민시대 이후 지금까지 볼로벤 고원을 중심으로 커피를 재배하고 있다. 볼로벤 고원에 거주하는 알락 종족도 커피 재배를 하고 있는데, 자급자족 수준을 넘어서는 가족 생계의 부담을 해결하는 방법이 되고 있다. 대량생산 산업은 아니지만, 마을사람들을 중심으로 농장과 같은 재배지를 함께 경작하며 집마다 가내농업의 규모로 수확한다. 커피 수확물

⁹ 한국일, 장신대 교수, 사회봉사신학 소논문 p.4

을 매매하기 위해 알락 종족 반 톤 노이 마을은 현재 라오산 주식회사와 계약을 맺어 거래를 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알락 족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능률적인 커피 재배의 방법과 효율적인 커피의 유통 방법을 교육받는 것이다. 이는 커피 재배에만 국한된 사항은 아니다. 농업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선교사들이 능률적인 농산물 재배의 방법과 효율적인 농산물 유통 구조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들과 관계를 맺는다면 이는 복음 전파의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이다.

3) 교육 센터 설립

알락 종족 대다수의 최종학력은 의무교육인 초등교육에 머무른다. 이처럼 교육의 수준이 낮은 이유는 거주지와 중·고등교육 기관 사이의 거리(원거리) 문제와 마을에 남아 자신들의 부모의 업(농사)을 이어 받아야 하는 생활상의 문제에 있다. 알락 종족은 대부분 초등 학교만 다니고 부모의 커피 농사를 물려 받는다. 도시로 진출하고 싶은 소망도 있지만, 재정 상황이나 친지가 없는 상황 등의 어려움 때문에 대부분 마을에 정착한다. 이는 남부 지역 종족의 대체적인 모습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 알락 종족에 대한 교육 사역의 필요성을 기늩해 볼 수 있다. 교육사역의 기본적인 목적과 같이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쉽게 복음을 접하고 나아가 그 땅의 인재로 양육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기본적으로 교육 시설의 확충, 장학생 후원 제도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와 같은 교육 시설의 확충의 경우, 사실상 정부의 정책적, 물질적 도움이 같이 가야 하기에 무리수가 있다. 또한 시설이 확충되어도 알락 종족의 교육열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효과를 볼 수 없고, 재정적인 부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접근해야 할 것이다. 대신 지역적인 교육 센터 설립이 방안이 될 수 있다. 작은 규모로 장학 제도를 마련하여 우수 학생을 선발한 후 지속적으로 장학금 후원과 신앙적인 영향을 준다면 라오스 땅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재가 양성될 것이다.

4) 스포츠 선교

알락 족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라오스 청년들은 음주, 흡연 등으로 시간을 허비한다. 이제 그들이 의미 없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하는데, 그러한 도움 중 효과가 입증되고 있는 것이 스포츠 분야이다. 그들에게 스포츠의 영역은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영역이지만 축구의 경우 예외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축구는 국가적으로도 장려되는 스포츠이며 라오스 국민들의 많은 인기를 누리는 스포츠이다.

현재 한국에서 즐겨하는 스포츠도 원래부터 있었던 한국에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야구를 예로 들면, 원래부터 한국에 존재했던 스포츠가 아니라, 1905년 미국의 길버트 선교사에 의해 전파된 스포츠이다. 라오스에도 새로운 스포츠를 전하여 주어서 축구뿐 아니라 그들의 상

황과 여건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건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한국의 태권도와 같은 무술도 어느 정도 종족 청년들이 새롭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감의 열의를 느낄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과적으로 종족 청년들이 삶에 있어서 좀 더 보람 있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그 토대를 마련해주면 훗날 라오스의 스포츠 인재를 양성할 기회 마련도 기대 할 수 있다.

5) 파트너십을 통한 효율적 선교

한국교회지도자들이 생각하는 21세기 선교 이슈와 방향⁹⁾의 조사(KMQ, 2003 가을호)에 의하면 내부적인 선교의 장애요소로 “효과적인 협력과 선교단체 간 조정능력부족”과 “공동 목적 및 전략 설정이 없음”을 꼽았다. 이는 지금도 여전히 선교지 각처에서 선교사님들을 통해 듣게 되는 아쉬움이다.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한 뜻을 품은 선교의 길이지만, 선교지 내에서의 선교적인 연합과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있어서 한 종족과 한 지역을 위해 헌신한 선교사라도 동남아시안을 섬기는 선교사라는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서로의 연합을 이루어낼 큰 그림을 그려나가야 한다. 한 나라의 협력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동남아시아 선교의 협력이 가능할 것이 가라는 질문이 생기겠지만, 오히려 작은 곳에서의 부정적인 “경쟁” 요소를 해소해야만 넓은 차원에서 협력으로 그 규모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동남아시아의 선교 환경에서 일어나는 변화로 인해, 특히 한국 선교사님들의 연합의 역량이 강화되었음도 간과 할 수 없다. 서구 선교의 쇠퇴와 약화, 후기 식민시대의 도래, 현지 교회의 등장, 아시아 전통 종교들의 부활 등의 변화를 겪으며 초기 서양선교사들과는 차별화된 사역자의 필요성이 등이 대두되었고, 이 에 적합한 한국인 선교사들의 중요성이 높아져왔다. 현재는 현지 사역자 양육이라는 중간 역할을 주로 담당하며 여러 교육분야에 있어 전문사역을 활발히 하고 있다. 교육은 배움의 깊이뿐 아니라 건문의 폭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신앙의 양육에 있어서도 폭 넓은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가 신앙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되기에 각 선교지 간의 연합의 효과는 가히 놀라울 것으로 기대된다.

6) 선교전략으로서의 리더

창의적 접근 지역의 선교는 리더가 중요하다. 인도차이나의 경우, 지역 문화 중심적인 이해를 가지고 전체 선교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선교 전략이 되는 것이다. 특히 현지 사역에서 선임 선교사 중심의 현장 선교 조직과 팀 사역은 그 필요성과 활용이 높기 때문에 리더에 의해 연합 선교의 효율성이 좌우 될 수 있다. 좋은 리더의 분명하고 당위적인 공동 목적과 전략의 설정은 선교단체 간의 효과적인 협력 및 선교지의 선교적인 연합과 협력도 이끌어 낸다. 이렇게 모든 사역자들이 같은 비전을 갖고 그 비전을

실현하여 나가도록 기꺼이 헌신하게 하도록 도전하고 만드는 이가 리더가 되어야 한다.

(3) 주체별 역할

1) 현지 사역자 : 현지 사역자의 회복과 양육

라오스 교회는 1885년 다니엘 벅길버러²⁾에 의해 복음이 시작되었다. 1902년 스위스의 형제 교단 선교사들에 의해 복음 전파가 이루어졌으며, 중부 지역에는 장로교회와 OMF 침례 교회가 사역을 하였다. 그러나 결국 1975 - 1979년 사이에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서 교회는 지하로 숨게 되었다. 선교사와 훈련 받은 라오스 인들은 다 떠나고, 결국 에는 총회장 비 타우 목사까지 미국으로 이민 갔고, 캄폰 목사(1990년 안수)와 캄 푸위앙 목사, 씨앙다우 등이 지도자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훈련 받은 많은 라오스 인들이 다시 돌아와 사역하게 된다면 외국 선교사보다 높은 친밀도와 동질성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이들이 사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아시아 교회들은 선교 환경의 변화를 인지하고, 현지인들에 대해 보다 예리한 감수성과 후기 식민 시대적 태도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현지 교회의 지도력을 세워주고 그들의 선교 역량을 키워줄 수 있도록 무대 배후에서 사역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지 교회 지도자들의 역량이 아무리 미약하다 할지라도, 아시아 선교사들은 그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며 그들 나름의 방식대로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섬겨야 한다. 부유하고 힘이 있는 아시아 교회로부터 온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관점에서 선교 의제를 설정하려는 유혹을 받게 되겠지만, 어떤 형태이든 선교 사역은 반드시 현지 교회들의 긴급한 필요를 돕는 것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더불어 복음을 받아들이는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후원하고, 이들이 학업을 마친 후에는 리더십을 훈련시키고, 귀향한 후 사역자로 서도록 하는 방식이 있다. 또한 셀 교회 운동과 같은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 신자 양육과 교회 개척 및 성장을 돕고, 더 나아가 전도해야 할 타깃과 개개인의 사역 대상과 범위를 설정하여 개개인에게 담당시킴으로써 전문성을 갖춘 리더로 세울 수 있다. 또한 교회 청년지도자들로 하여금 화해와 일치 가운데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도력 및 신학 개발 프로그램 장려해야 한다.

2) 한인 교회 : 한국 교회의 평신도 사역 재발견

라오스는 공식적으로 교회를 개척하거나 전도 집회를 하는 일들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공산 국가라도 외국인들의 신앙생활만큼은 허락을 하기 때문에 한인교회의 목사와 성도들만큼은 종교 활동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한인들은 선교 초기의 자원이 된다. 구체적으로 선교 초기의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의 한인교회는 목회자의 신분을

보장하면서도 지역사회를 돕는 사역들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어 대 정부 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으며, 기독교 개발 사역을 통해 교회가 좋은 기관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 또한 담임 목사의 비자 처리와 외부와의 의사소통이 용이하게 하며, 현지에서 재정적으로도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또 한인 교회 목사의 선교사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선교사들에 대한 교포들의 인식을 적극적으로 바꾸어 주며, 현지 선교사역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과거에는 타 문화권 지역에서 현지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만이 선교 활동으로 여겨지며, 한인교포에 대한 사역은 선교활동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국 교회의 동결된 자산이었던 평신도의 선교 참여가 부각되고 있음을 볼 때, 한인교회의 평신도 사역 또한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한인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평신도 양육이 곧 선교 훈련이 되어 그들을 곧바로 현장에 파송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를 더 느낄 수 있다. 더불어 한인교회 목사님에 대한 선교사로의 재 조명을 통해 자부심을 높여줌으로써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선교전략에 적합한 한인교회의 평신도 사역을 장려해야 한다.

3) 한동대와 GFR의 역할

동남아시아에서의 성공적인 복음전파 사역을 위해서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들 사이에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실제 선교 현장에서 교회들 사이에 파트너십의 부족이 현지 기독교인들에게 혼란, 갈등 및 분열의 원인이 되어 왔다. 한국 내의 상황만 보더라도 기독교의 이름 하에 갈려진 수십 개의 종파들이 진정한 연합을 이루지 못한 채 국내외 사역을 하고 있다. 한동대와 GFR은 이런 한국 기독교의 분열 문제를 해결할 주님의 방안으로서 쓰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략적으로는 먼저 학생들이 한동대 안에서 크리스천 마인드를 갖춘 전문인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고, GFR의 훈련을 통해 크리스천 리더쉽과 공동체성이 더욱 다듬어 져야한다. 이 학생들이 한국의 각 교단과 선교 단체에 들어가고, 어느 정도 각 분야와 단체에 리더로 세워질 때에 이르면, 한 공동체로 묶인 리더를 따라 각 단체의 연합도 수월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주님 안에 한 몸이 된 이들을 통해 한국의 기독교가 연합되고, 그 가운데 라오스의 선교 현장과 동남아의 각 나라, 나아가 온 세계 각국 가운데서 주님 오실 날을 앞당 기는 선교의 역사가 진행될 것이다.

V. 나가는 말

라오스는 인도 차이나의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지정학적으로 동남아시아 중앙내륙의 전략적 요충지이다. 세계화를 통하여 타국과의 교역이 증가하면서 라오스를 향한 타국의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세계화는 제한 없는 무분별한 수용으로 이어져 순수한 복음마저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공산주의의 사상적 영향력과 불교, 정령신앙의 종교적 영향력은 복음 전파를 제한하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부의 고원쯤으로 소외되고 있는 쎄콩 지역, 특히 알락족은 복음에 있어서도 동일한 소외를 받고 있다.

하지만 조사팀은 알락 종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알락족에 대한 복음 전파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었다. 공식적인 허가를 받은 도시의 교회가 보이지 않는 압제를 받고 있는 반면, 지형적,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쎄콩 지역은 오히려 사회 체제와 종교적인 면에서 비교적 자유로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물소의 희생을 통해 속죄 받음을 믿고 있는 알락족의 정령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효과적인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NGO 사역을 비롯한 다양한 선교전략들은 알락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실용적인 통로가 되고 있었다.

선교전략 파트에서 제시된 다양한 선교 전략은 결국 알락족의 실제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필요의 충족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시발점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노력 위에 올바른 복음이 전해지고, 전해진 복음이 열매를 맺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우리의 전략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더욱이 제시된 전략이 알락 종족뿐만 아니라 알락족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라오스 남부의 미전도 종족에게까지 그 영향력을 미칠 때에 우리의 선교전략은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 있는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한동대와 GFR, 한국 교회 그리고 현지의 선교사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라오스의 복음화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십자가의 복음이 효율적인 선교 전략을 통해 주님의 때에 온전하게 라오스의 지역과 종족들 가운데 심겨지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라오스 교회가 동남아시아의 각 교회와 연합하여 주님의 몸 된 교회로 영광을 돌리며, 인도차이나의 보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참고문헌〉

최다니엘, “NGO 활동을 중심으로 본 베트남(북부)의 선교방향 모색”, 『Korean Mission Journal』, 총회선교회, 2004.
강대홍, “지역문화중심적 이해가 필요한 인도차이나 선교”, 『Korean Mission Journal』, 총회선교회, 2004.
한국일, 장신대 교수, 사회봉사신학 소논문 p.4

여호수아 프로젝트- 종족소개, www.joshuaproject.net

UN Development Programme, www.undp.org.

국정원 – 라오스 개관, www.nis.go.kr/app/global/world

Operation World, <http://www.gmi.org/ow>

라오스 관광 정보 소개, www.laos.travelmall.com/index.html

동아 세계 대백과 사전, www.kin.naver.com/open100

인터넷 백과사전-세종주 관련 정보, www.wikipedia.org

SIDA 프로젝트 소개, www.sida.org

SPFS 프로젝트, www.fao.org/spfs/laos

Pacific Asia Travel Association, www.travelwithpata.com/index.html